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6> 소동파 (상)

흔히 당송팔대가 라고 불리는 당송시대에 가장 글 잘 쓰는 사람 여덟명 중에 세 사람이 소동파(蘇東坡 1036~1101)네 집안이다. 아버지 소순(蘇洵)과 동생 소철(蘇轍)까지 포함된 명문가이다.

소동파는 <주역>과 <서경>의 주석서를 남겼고 <전적벽부(前赤壁賦)>라는 최고의 명문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그가 즐겨 머리에 둘러 쓴 갓은 얼마나 모양이 특이했는지 '동파건(東坡巾)'이라고 불렸다.

미식가였는지 동파육(東坡肉)이라는 요리가 현재 남아있을 정도다. 그가 황주에 살고 있을 때 자주 만들어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돼지의 갈비살을 간장 설탕 파술 등으로 양념해 약한 불에 장시간 끓인 것으로 고기가 두부처럼 부드럽고 맛이 좋아 지금도 중화요리집 메뉴판의 한 편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분야를 가리지 않는 만능인인 셈이다.

절집과의 인연도



보내는 편지형식을 띠고 있다.

계성변시광장설(溪聲便是廣長舌) 산색기비청정신(山色豈非淸淨身) 아래팔만사천계(夜來八萬四千偈) 티끌여허거사인(他日如何學似人) 계곡물 소리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이요 / 산색은 그 자체로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 여제 밤 깨침으로 다가오는 팔만사천 법문을 / 다른 날에 어떻게 남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동림선사가 열반하자 스승을 위해 글을 올렸다.

당당했던 상충 선사시어(堂堂總公)

출가자 중의 출가자로다(僧中之龍) 숨을 쉴 때마다 그것은 구름이 되었고(呼吸爲雲) 하품할 때마다 바람이 되었는데(噓歔爲風) 소동파는 많은 일

### 어릴때부터 불교와 인연깊은 빼어난 문장가 동림선사에 귀의 '계성산색...' 오도송 유명

만만했다. 사천 아미산 출신인데 8~9세 무렵 이상한 꿈을 꾸었다. 전생같은데 승려의 모습으로 삼우(陝右·삼서성 오론퉈 지역)지방을 왕래하는 꿈이었다.

또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였을 때 눈이 나쁜인 승려가 방문하는 태몽을 이미 꾸 바 있다. 운문문언(864~949)의 제자이며 오조산에서 머물던 사계(師戒)선사는 삼우사람으로 의논하였는데 열반한지 오십년 전이었다. 동파의 나이가 그 때 49세였으니 사 람들은 그를 오조사계의 후신이라고 하여 '계화상(戒和尚)'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그럼에도 젊은 날에는 불법과 크게 인연이 없었던 모양이다. 66세때 동림상충(1025~1091) 선사를 만나 불법에 귀의했고 그의 법문을 듣고 안목이 열렸다.

동림선사는 인제종 황통해남(1002~1069) 선사의 제자로 '마조가 다시 환생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해남선사에 비교해 '소남(小南)'이라고 불린 700 대종을 거느린 대 선지 식이었다. 소동파의 오도송도 동림선사에게

화를 절집에 남겼다. 불인요원(1032~1098) 선사는 관복에 걸치고 있던 옥대(玉帶)를 그와 내기를 하여 마침내 빼앗아 버렸다.

불인이 하루는 방에 들어가려는데 약속도 없이 동파가 나타나자 말했다. "이곳엔 있을 자리가 없어 거사를 모실 수 없소이다."

손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못들어오게 하니 가만있을 동파가 아니다. 바로 맞받아 쳤다.

"잠시 스님의 육신을 자리로 빌려서 앉 아 봅시다."

앉을 곳이 없었다면 스님의 몸을 좌복삼아 그 위에 앉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 열 차나 버스에 표를 한 장만 끊고서 어린이를 안고가는 풍경을 연상하면 된다. 그러 면 한 자리에 둘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되 긴 한다. 그런데 어른 둘은?

치기있는 역공을 당한 선사이지만 여유 있는 웃음을 날리며 한마디 했다. (계속)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 나는 왜 여기서 절을 하고 있나

### 1만배 도전한 보살들

여덟 명의 보살들이 하루 꼬박 1만배를 한다고 했다. 짧게는 25시간이나 걸리는 쉽지 않은 일이다. 무슨 생각으로 1만배를 자행했을까.

6월 3일 천안 한암사불교문화원 대법당은 신도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후끈거렸다. 그렇지 않아도 때 이른 한여름 날씨를 느낄 만한 날씨였다.

여덟 명 보살들 중 세 명은 그동안 하루 1천배씩 1백일을 작성하고 해 온 절수행 회향을 3일 남겨놓고 있다.

세 명은 회향을 더 큰 수행의 입제로 삼자고 뜻을 모았고 1만배를 결의했다. 그동안 1천배 1백일 절수행을 마쳤거나 현재 진행중이 있는 보살들이 그 뜻에 가세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한 1만배. 시계바늘이 오후 4시로 향하면서 지치지 시작했다. 정진숙 보살(43)이 좌복에서 물러나 다리를 펴고 앉았다. 발을 걸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 시간, 김은숙 보살(44) 남편이 옆에 좌복을 깔고 함께 절을 하기 시작했다. 신미녀 보살(38)의 딸 정지예(14)양과 아들 정순민(11)군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엄마 뒤에서 절을 하고 있다. 이들이 1만배를 마친 것은 다음날 오전 7시가 넘어서였다.

### 갈등 조절할 힘 생겼어요

▶ 이옥향(45·수간호사 출신·신행 7년)

처음에는 입장을 소멸하기 위해 절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천배 1백일 기도를 회향하고 나서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내 능력을 알고 싶기도 하고 한계상황을 느껴보고 싶기도 했어요. 아이들요? 결혼도 안했는 데... 자유롭죠. 수행다운 수행 한 번 해보고 난 뒤 생각 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잖아요?



### '내안의 나' 만날 것 같아요

▶ 윤명숙(42·단국대 교직원·신행 3년)

내가 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동안 해 온 1천배 1백일 기도보다 어렵게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14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견딜 만해요. 기가넘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그래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이들을 꾸짖을 때도 설득하게 됐어요. 내가 달라져야 아이들이 달라진



“천안 한암사불교문화원 주지 원철 스님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다. “또 자신을 속이고 있 습니까.” 정신이 번쩍했다. 절하기 시작한지 벌써 12시간이 지났다. 속도도 느려지고 물병을 잡는 횟수가 늘어났다. 정신이 어디로 가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이따금씩 느껴진다. 지금 까지 먹은 것이라곤는 바나나 한 조각과 물 뿐이다. 절이 절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친다. 하지만 그 생각은 찰나다. 머릿속이 하얗다. 나는 왜 여기에서 절을 하고 있을까.(이은지·38)”



다른 것을 깨달았거든요. 절 하면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물으셨죠? 글썽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 안의 나' 라고 생각해요. 더 바라죠. 확신이 들 때까지요.

### 내 마음에서 향기가 납니다

▶ 김은숙(44·음식점 운영·신행 4년)

저는요. 진짜 저를 버리고 싶어요.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참 괴로웠지요. 그래서 벗어나자고 작정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하면서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서도, 너무도 신기했죠. 108배를 700일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참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1만배 끝나면 참선수행을 할 생각이예요. 내 마음을 보고 싶어요.



### 그냥 살아온 세월 되찾을 것

▶ 신미녀(38·가정주부·신행 6년)

팔이 같이 하고 있으니 죽더라도 끝까지 해야죠. 그냥 살아온 세월들을 되찾을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문제, 집안 문제 여러 가지로 복잡했어요. 사는 게 힘들었죠. 그런데 절하면서 내 환경이 이해가 되더군요. 갈등이 점차 줄고 있어요. 절하면서 오히려 살이 쪼့죠. 5Kg이나요. 하지만 이게 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뭔가가 더 있을 거예요.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 '나' 돌아보면서 변화 느껴

▶ 박은미(33·분장전공·신행 6개월)

젊은 사람들 티격태격하며 살잖아요. 오해도 하고,

미워도 하고요. 한암사에 와서 스님 법문을 듣고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절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무속처럼 여기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믿어요. 저도 남편을 믿고요. 믿음이 생겼죠. 1천배 1백일 기도를 하면서부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싶어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 하심하고 참회하는 것 배워

▶ 이은지(38·한의사·신행 3년)

절을 하면서 하심하고 참회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수행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행복한 가정과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니 불편할 것이 별로 없을 텐데 왜 수행을 하냐고 물으셨던 그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요. 몸은 이것처럼 지금 불행하지는 않아요. 행복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은지가 살고 있는데, 이게 이은지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확신은 없어요. 나를 찾을 수 있을지요. 하지만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정리·사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너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세는 본가는 인사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로구 명랑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ntr.com E-mail: heegyun@avatar21.com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의 修辭  
8. 상담 &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 이내  
※ 맞춤형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중로구 중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중로 3가역 2번출구)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치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함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 ◆  
■ 다幸,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최고 품질의 악기만 생산하는 **양지 국악사**

- 불심, 장인정신, 전문성, 품질로 국내 최고의 제품 생산 -  
저희 양지국악사는 1991년도에 종로에 처음 국악기 전문매장을 개업한 이래 2001년 경기도 하남시에 국악기 제작소를 마련하였으며, 그곳에서 각종 북과 특수 악기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서 불자고객여러분을 찾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 타악기 PRE Percussion Instruments  
고정음율이 있는 악기와 고정음율이 없는 악기로 이루어진다.  
● 장구 ● 북 ● 소고  
● 징 ● 평거리

◆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악기의 몸통에 줄을 매어 이 줄을 통해 소리가 나는 것이다.  
● 가야금(21현, 22현) ● 아쟁  
● 거문고 ● 해금 ● 양금 ● 비파

◆ 관악기 Wind Instruments  
입으로 김을 불어넣어 허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 대금 ● 소금 ● 단소 ● 나각  
● 태평소 ● 피리 ● 통소 ● 당적

◆ 악세서리 Accessories  
◆ 소품 Stage Properties  
● 풍물보 ● 삼모 ● 북받침 ● 장고피 외 일체 기타주문제작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동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HP: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방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주)천성건설**

공사 개요 웰빙공사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석재, 부동 일체  
◆ 석, 조각, 석물 일체  
◆ 석, 불상, 좌상, 미륵  
◆ 석, 탑, 마애불상조각

◆ 건설부문  
◆ 석굴, 남궁당 공사  
◆ 석굴, 법당 조성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석 공사 일체  
◆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사 완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용역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 본 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 공 장: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공사문의: 전 화 041)334-2567~9  
H·P 010-8662-4841, 010-4581-4841  
이인창 소장 (010-6685-0203)

**(株)天星建設**